

“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 ”

■ 이종윤 원로목사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교회는 밧모섬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로 본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다.

에베소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는 거짓 교역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됨을 드러낸 교회로서 칭찬을 받았다. 악한 자들은 니골라당을 연상시킨다. 니골라는 언어학적으로 니콘(삼키는 자, 이기는 자)과 라오스(백성) 그리고 히브리어로 발라(삼킨다)와 암(백성) 즉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이 있다. 우상숭배와 행음으로 백성을 삼켜 망하게 하는 이단종파였다. 에베소교회가 정통 진리를 지키면서 이단 사이비의 비진리를 드러내는 수고를 했다고 인자되신 부활하신 주님의 칭찬의 말을 들었다.

에베소교회는 교리적 정통과 정행이 있어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로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 이는 형제사랑(Philia)을 버렸다는 수평적 사랑이 아니라 주 예수님 사랑(agape) 즉 수직적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다.

AD53년경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매일 5시에서 10시까지 요즘 시간으로 11시에서 16시까지 성경 강좌를 열었다. 점심시간을 빼고 매일 4시간씩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행19:9-10)

1907년 평양대각성운동 당시 믿음의 선진들은 50리~70리 길을, 소에 먹을 것과 덮을 것을 신고 걸어와 사경회에 참여했다. 평양에서 폭발된 이 회개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논밭에서 가정에서 상량위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 통곡하며 ‘마치 지옥 뚜껑이 열린 것처럼’ 각종 죄들이 모든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이 나라 전국을 불태워 ‘평양대부흥운동 - 각성운동’이 이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은 교회사에서 웨일스 성령운동과 함께 기록으로 남아 있다.

한국교회도 주님 사랑의 열도가 크게 끓어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이제 물량주의, 기복 신앙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우리도 다시 회복할 때가 되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주님을 수직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이웃사랑의 수평적 사랑은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주님 사랑하는 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셨다. 그 열매를 영생으로 주석하는 이들이 있으나 영생은 구원받는 성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미 주신 것이므로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내세에 이기는 자 즉 회개한 자 또는 순교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을 말한다.

그 상급을 어떻게 주어 먹을 것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마치 복종의 생명이 이 세상을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내세의 일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미래에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되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상으로 받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550호] 2017년 5월 27일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 후 둘째 주일입니다. 서울교회가 회복되고 새로 세워지는 역사 가운데 담임목사 청빙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아닌 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 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 수요 1,2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새벽기도회와 각 교육부서 예배는 당분간 계속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드립니다.

※ 방역, 교인확인 및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기존과 같이 1층 현관 앞 또는 지하주차장 주차 시 지하1층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411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교육전도사 김은숙 양하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보연·김희경, 우상식·김경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향경(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학·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세리, 수바스, 알로롱, 비시루브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용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라위),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 로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

■ **행 5:29-32**
예수의 죽음은 인간들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죽음은 흉악무도한 죄인들, 심지어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영은 모든 이들의 죄를 정화하고 성결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증거가 예수의 부활입니다.

1. 나무에 달려 죽임 당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분은 능히 그러한 참혹한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사도들이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고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신 일이었습니다(행 2:23).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시고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경한 뜻대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들이 받는 형벌입니다(신 21:23).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고 하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갈 3:13-14). 바울의 이 설명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저주받은 존재가 된 것은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순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교자 우리 대신 스스로 저주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사도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게 하는 율법이 날카롭게 묻고 늘어지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나무에 친히 달리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2. 임금과 구주가 되신 생명의 주를 믿으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죄 없으신 그가 극형의 형벌을 받으신 그 자체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 자리에 묻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행 3:14-15).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 전에 하던 일로 되돌아갔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가 죄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 무너뜨린 참 구원자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확정하는 사건입니다. 더욱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이 거짓 선동이 아니라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사도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이롭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4-15)

맺는 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는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짓이 아님을 확증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 받음을 믿으십니까?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일에 증인이로서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나 주 서장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서명철 목사	안인호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오전 15:51-5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38(시 9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29(29)...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시 119:65-7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서장원 목사
 * 찬 송 Hymn341(36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양예배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안용곤 전도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6:8 인 도 자
 찬 송 170(16) 다 함 께
 기 도 임대중 집사
 성 경 스 10:1-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당신의 말씀대로” ... 설 교 자
 * 찬 송 586(521) 다 함 께
 * 축 도 인 도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II부 오후 7시

기 도 I부: 송민정 권사 II부: 허 숙 권사
 성 경 룻 2:1-1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거룩한 낭비”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화2

설 교 전재홍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교회소식

모임

1. 정기당회 / 4월14일(수) 오후 5시 402호

알림

1. 101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명의로 신규계좌가 개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예전 사용하던 계좌는 202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 이번주 심방 일정 1-4, 7-1, 11-5, 13-1~2, 14-1~2다락방 장 레 1. 故 이정희 님(12교구 정병무 장로의 모친, 박경희 권사의 시모, 정석균 집사, 정승균 집사의 조모, 김미선 집사, 송명원 집사의 시조모) / 4월3일(토) 별세, 5일(월) 발인 2. 故 박윤례 권사(11교구 안인호 장로의 모친, 이명신 권사의 시모) / 4월4일 별세, 6일(화)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470명	510명	1,980명	345명	1,645명

아사왕의 세 가지 어려움

위급한 때 침착하기가 어려웠다. 북 이스라엘이 남 유다를 치러왔을 때 유다왕 아사는 황급한 나머지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거두어 아람왕에게 보내며 원군을 청했다. 아사왕으로서의 중대한 실수였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이 실수요, 도적과 타협한 것이 잘못이며,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정치목적으로 유용했으니 죄를 범한 것이다. 위급한 사태가 그를 당황케 했고 당황하다보니 경망스런 짓을 저지른 것이다.

충고를 달게 받아들이기가 또한 어려웠다. 사람이란 충고가 필요치 않을 만큼 완전무결한 존재가 아니다. 아사왕은 선지자의 충고를 역겹게 여겨 옥에 가두는 폭군이 되었다.

어제의 선이 오늘의 덕으로 연결되기도 어렵다. 그는 어제의 선에 자만치 말고 오늘도 계속 선하게 살아야 했다.

“주여! 나의 승리가 어제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이야기가 되게 하소서.”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